

1. 새로운 시작

산문의 향기

산문에 나타난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.

이 단원의 학습 요소

- 비유와 상징의 표현이 담긴 산문 감상하기
- 비유와 상징을 중심으로 산문 이해하기
- 문학적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기

• 썩

이오덕

◆ 용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?

“엄마, 정말 나 이제 학교 안 갈래요.”

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보리밥 그릇을 무릎 앞에 놓고 먹을 생각도 않는 용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.

“아가 또 이런다. 지발 어미 속 그만 썩여라. 3년이나 다닌 학교를 그만두면 어쩔래? 순이 봐라. 글 한 자도 모르제.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하면 어떡할라고.”

순이는 뒷집에 있는 아이입니다. 작년에 학교에 입학했는데, 하도 아이들이 곰보딱지라고 놀려서 한 달도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. 그래서 순이는 요즘 아침밥만 먹으면 *책 보통이 대신 바구니를 들고 혼자 들로 나갑니다. 냉이를 캐는 것입니다.

“나도 이제 4학년 됐잖아요? 남의 책 보통이만 메고 다니는 거 부끄럽 다니까요.”

“글쎄, 그거 늘 하는 소리제. 지발 좀 참아라. 아이구, 없는 기 원수지. 그 애들이 왜 그렇게 못살게 하나!”

어머니도 밥숟갈을 들 생각을 앓으시고 한숨을 쉬시더니 또 말을 이었습니다.

머슴살이 남의 머슴 노릇을 하는 일.

“야야, 너 아버지도 올해만 남의 일을 하면 그만두실 까다. 한 해만 참아라. 부디 한 해만…….”

용이는 아버지가 남의 집 *머슴살이를 올해만 하면 그만두신다는 말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.

산전 산에 있는 밭.

“정말 그만뒤요? 올해만 하고?”

◆ 용이가 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?

“너 장래를 생각해서도 그만두시게 해야지. 남의 *산전(山田)을 얻어서 죽을 먹더라도…….”

용이는 된장국에 보리밥을 말더니 단숨에 퍼먹고는 책 보통이를 허리에

참꽃 먹는 꽃이라는 뜻으로, ‘진달래’를 개꽃(철쭉)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.

향토 예비군 적의 공격에서 자기 고장을 지키기 위해 1968년부터 편성한 비정규군.

◆ 아이들이 모두 용이에게 책 보통이를 맡기는 이유는 무엇인가?

산기슭 산의 비탈이 끝나는 아랫부분.

지깃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작대기.

고갯마루 고개에서 가장 높은 자리.

산허리 산 둘레의 종턱.

둘러매고 일어났습니다.

‘올해만 참으면 된다!’

“용아, 빨리 나와!”

바깥에서는 벌써 아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마을 앞을 지났을 때는 여러 아이가 되었습니다.

“야들아, 오늘은 우리, 고개 위에서 *참꽃 좀 꺾어 가자!”

“아직 꽃도 안 폼을걸?”

“병에 꽃아 두면 빨리 핀단다.”

“그래, 꺾어 가자. 새 교실이 환하게.”

모진 겨울을 이겨 낸 보리들이 푸릇푸릇 살아난 밭둑길을 걸어가면서 아이들은 모두 어깨를 우쭐거리며 *향토 예비군의 노래를 소리쳐 불렀습니다.

그러다가 *산기슭을 돌아 고갯길에 올라섰을 때 그들은 모두 용이 발밑에 책 보통이를 던졌습니다. 3년 동안 용이 어깨에 매달려 재를 넘어가고 넘어오던 책 보통이들입니다. 용이 아버지가 같은 동네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두 용이까지 남의 짐을 날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.

“자! 인마, 너 이제 4학년이 돼서 기운도 세졌잖아. 하나 더 날라라.”

지금까지 같은 반의 아이들만 그렇게 하던 것이 오늘은 한 학년 위의 성윤이까지도 따라와 이렇게 말하면서 커다란 책 보통이를 놓고 갑니다.

책 보통이는 용이 제 것까지 모두 일곱 개나 되었습니다.

책 보통이를 용이에게 맡겨 버린 아이들은 모두 소리치면서 산길을 달려 올라갔습니다.

“올해만 참자!”

용이는 언제나처럼 바위 밑에 가서 참나무 *지깃작대기를 찾아와 책 보통이를 모두 꿰어 달았습니다. 그리고는 어깨로 가운데를 메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.

아침 햇빛이 산 위에서 짙 비쳐 내렸습니다.

*고갯마루까지는 *산허리를 세 번이나 돌면서 올라가야 합니다. 더구나 오늘은 책 보통이가, 모두 한 학년씩 올라가서 그런지 굉장히 무겁습니다.

용이는 첫 굵이를 돌아가기도 전에 마른 잔디 위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.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날마다 메고 올라가야 할 일을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.

더구나 5학년의 성윤이까지 맡기기 시작했으니 이러다가 올 해는 지게로 쳐다 날라야 할지 모릅니다. 이걸 어떻게 하나?

저 밑에서 따라 올라오던 2학년, 3학년 아이들이 모두 책 보통이를 허리에 둘러매고 용이를 앞질러 올라갑니다. 그 아이들은 용이를 돌아보면서 저희끼리 무엇이라 수군거렸습니다.

“헤헤, 4학년이 됐다는 아이가 남의 책 보통이나 메다 주

고…….”

“참 못난 아이제.”

모두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.

‘뭘, 못난 아이라고?’

◆ 용이가 화가 난 이유를 생각해 보자.

용이는 화가 났습니다. 벌써 고개 위에 다 올라갔는지 아이들의 고향이 산 위에서 들려왔을 때, 갑자기 용이는 눈앞에 있는 책 보통이들을 그냥 콕콕 짓밟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. 발밑에 돌멩이 하나가 밟혔습니다. 용이는 벌떡 일어나 그 돌멩이를 집어 힘껏 골짜기 아래로 던졌습니다. 돌멩이가 저 밑에 떨어지자, 갑자기 온 산골을 뒤흔드는 소리를 치면서 커다란 뭉텅이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.

“꼬공 꼬공, 푸드득!”

그것은 온 산골의 가라앉은 공기를 뒤흔들어 놓고 하늘을 날아오르는, 정말 살아 있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.

‘야, 참 멋지다!’

◆ ‘뽕’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본 용이는 무엇을 느꼈는가?

뽕지 새의 뽕무늬에 붙은 것.

날개를 짹 펴고 뽕지를 쭉 뻗고 아침 햇빛에 눈부신 모습으로 산을 넘어가는 뽕을 쳐다보는 용이의 온몸에 갑자기 어떤 힘이 마구 솟구쳤습니다. 용이는 그 자리에서 한번 훌쩍 뛰어올라 보았습니다. 하늘에라도 날아오를 듯합니다. 용이는 발에 채는 책 보통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하늘 위로 던졌습니다.

횡! 공중에서 몇 바퀴 돌던 책 보통이가 펑 소리를 내면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, 용이는 두 번째 책 보통이를 집어 던졌습니다.

또 하나, 또 하나…….

마지막에 던진 작대기는 건너편 벼랑의 소나무 가지를 철썩 치도록 멀리 떨어졌습니다.

“됐다!”

◆ 웃고 있는 용이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해 보자.

용이는 이제 하늘이 탁 트이고 가슴이 시원해져서, 저 건너 산을 보고 “하하하.” 웃었습니다.

떠가는 구름을 따라 마구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.

‘내가 정말 못난이었구나!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!’

용이는 제 책 보통이만 허리에 둘러맸습니다. 그리고는 고개를 향해 날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.

고갯마루에는 아이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모두 손에 참꽃 가지를 한 줍씩 들었습니다.

어떤 가지는 벌써 불그레한 봉오리가 피어나려고 했습니다.

“어, 용이가 빈손으로 오네?”

“정말 저 자식이?”

“인마, 책 보통이 모두 어쨌나?”

용이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올라오고만 있습니다. 아이들이 용이를

빙 둘러쌌습니다.

“너, 책 보통이 어쨌어?”

“이 자식, 죽고 싶나? 빨리 말해!”

용이는 아이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조용히, 그러나 힘찬 소리로 말했습니다. 이상하게도 책 보통이를 모두 날리고 나니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 조금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.

“너희들 책보 말이제? 저 밑에 두꺼비 바위 아래 던져 놔어.”

“뭐? 이 자식이!”

“이 자식 돌았나?”

“빨리 못 가져오겠나?”

그러나 용이는 여전히 조용한 소리로 말했습니다.

“나, 이제 못난 아이 아니야!”

“어, 이 자식이?”

“요런, 머슴의 자식이.”

“나쁜 자식! 맛 좀 볼래?”

거머쥐다 틀어잡거나 휘감아 쥐다.

아이들의 발과 주먹이 용이를 덮쳐 왔을 때, 용이는 번개같이 거기를 빠져나와 몇 걸음 발을 옮기더니, 발밑에 있는 돌을 두 손으로 한 개씩 거머쥐고는 거기 있는 커다란 바윗돌 위에 경충 뛰어올랐습니다.

그 몸놀림이 어찌나 재빠른지, 아이들이 모두 놀랐습니다. 지금까지의 용이와는 아주 다른, 판 아이였습니다.

“자, 덤빌람 덤벼! 누구든지 오는 녀석은 가만두지 않을 끼다!”

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을 때, 뒤에서 한 아이가,

“난, 내 책보 가질러 갈란다.”

하고 달려갔습니다. 그 소리에 다른 아이들도 모두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,

“나도 간다.”

“나도 간다.”

하고 달려갔습니다.

“이 자식, 두고 봐라.”

맨 마지막에 내려가면서 성윤이가 말했습니다.

“오냐, 인마, 얼마든지 봐 준다.”

용이 목소리는 한층 크고 자랑스러웠습니다.

◆ 용이의 혼잣말은 어떤 결심을 드러내는가?

아이들이 모두 ‘와아!’ 하고, 아까 올라온 길을 내려가는 뒷모양을 보면서 용이는 또 한 번 가슴을 확 펴고 ‘하하하.’ 웃었습니다.

‘나 이제 못난 아이 아니야!’

그러고는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.

“내일 아침에는 순이를 데리고 오자. 순이를 놀리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고 용서 안 할 끼다.”

내리받이 비탈진 곳의
내려가는 방향.

용이는 돌아서서, 햇빛이 눈부신 *내리받이 길을 바라보았습니다. 이제
는 단숨에 학교까지 뛰어갈 듯합니다. 하늘에는 하얀 구름 한 송이가 날
고 있었습니다. 용이는 훌쩍 한번 뛰더니 마구 두 팔을 내저으면서 내리
달렸습니다. 그것은 마치 한 마리의 꿩이 소리치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
모습과도 같았습니다.

📖 **이오덕(1925~2003)** ** 경북 청송 출생으로 어린이 글쓰기 운동 및 우리말과 우리글을 다듬는 일
에 힘쓴 우리말 연구가이며, 교육자이자 아동 문학가이다. 주요 작품으로 <꿩>, <종달새 우는 아침>,
<개구리 울던 마을> 등이 있다.

등장인물 관계도



용이 엄마

아버지가 을/를 올
해만 하고 그만두실 것이니 용
이에게 한 해만 참으라고 함.

설득



용이

다른 아이들의 을/
를 메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
에 가기 싫어함.

갈등



동네 아이들

용이가 자신들의 짐을 날라
주는 것을 생각하여
용이에게 책 보통이를 맡김.

비슷한 처지



순이

아이들이 (이)라고
놀려서 학교를 한 달도 다니지
못하고 그만둬.

이 소설을 읽은 느낌을 적어 보자.

학습 활동

<땡>은 주인공 용이가 학교 친구들의 괴롭힘에 용감하게 맞서는 과정이 드러난 소설이다. 주요 소재인 '땡'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고, 비유나 상징을 활용하여 글을 써 보자.

1 작품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인물의 행동을 살펴보자.

① 그림을 보고 작품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자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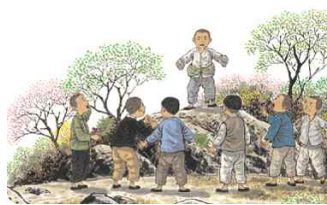
이/가 된 첫날, 용이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다가 집을 나선다.



용이는 (이)라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고갯길을 올라간다.



산을 넘어 날아가는 의 모습을 보고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 용이는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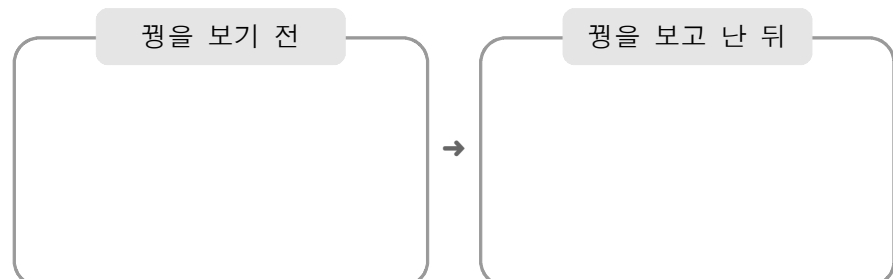


에서 용이는 책 보통이를 다시 찾아오라는 아이들에게 자신은 이제 못난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며



용이는 학교를 향해 달려가면서 내일은 고 결심한다.

② 땡을 보기 전과 보고 난 뒤 용이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 보자.



③ 동네 아이들이 용이의 달라진 행동을 본 뒤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해 보자.

④ 용이가 순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겠다고 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.

2 작품에 나타난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해 보자.

① 작품에서 '꿩'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.

② 작품의 결말에서 용이를 '꿩'에 비유한 이유를 말해 보자.

용이는 훌쩍 한번 뛰더니 마구 두 팔을 내저으면서 내리 달렸습니다. 그것은 마치 한 마리의 꿩이 소리치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.

③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 보자.

④ 작품에 나타난 문학적 표현이 주제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지 생각해 보자.

3 비유나 상징을 활용하여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써 보자.

① 소개하고 싶은 친구를 정하고, 그 친구의 인상이나 특징을 떠올려 보자.

내 친구 수아는 나에게
고민이 생기면 늘 도움이
되는 이야기를 해 준다.



② ①에서 떠올린 내용을 비유나 상징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.

수아는 생수이다. 고
민이 있을 때 수아의
조언을 들으면 속이
시원해진다.



생각 모으기

이 단원에서는 비유와 상징의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소설을 감상하고,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글을 써 보았다.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.

●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**보기**에서 찾아보자.

-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빗대어 나타내는 대상 사이의 을/를 찾아야 한다.
-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(으)로 표현할 수 있다.
- 문학 작품에 나타난 비유와 상징은 을/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.

보기

주제

유사성

일반적

인상적

어휘 학습

㉮ ‘모양’을 흉내 내는 단어와 그 뜻을 확인하고,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어 보자.



- (1)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른다.
- (2) 구름이 갠 뒤 하늘이 트였다.
- (3) 고양이가 담장 위로 뛰어올랐다.
- (4) 앞에 앉은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.

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. ♥